



영암 F1 서킷 첫 질주 4일 영암군 삼호읍 F1 자동차 경주대회 서킷에서 열린 '서킷런 2010' 행사에서 F1 머신을 비롯해 100여대의 슈퍼카가 굉음을 내며 서킷을 질주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0월 22일~24일 열리는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관련기사 3·16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풍 '말로' 내일오후 전남 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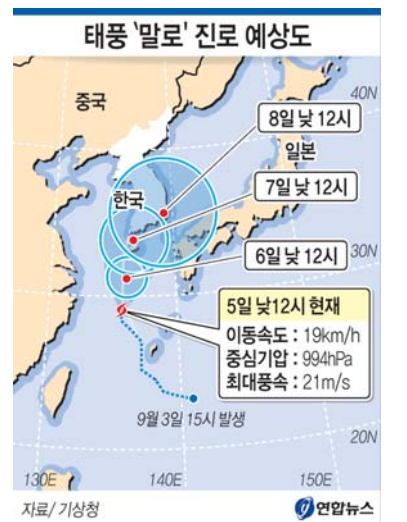
최고 150mm 폭우 동반

북상중인 제9호 태풍 '말로'(MALOU·구슬을 뜻하는 마카오어)가 7일 오후 전남 내륙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말로'는 7일 서귀포 서쪽 해상을 거쳐 오후 3시께 목포 남쪽 약 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뒤 전남지역을 관통해 경북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은 8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50~150mm(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50mm 이상).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말로'는 중심 기압 994헥토파스칼(hPa), 중심 부



근 최대풍속은 초속 21m로 강도는 약하고, 규모는 강풍 반경 220km인 소형급이다.

6일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이를 동안 지속됐던 폭염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현섭 쓰나미' 민주당 덮치나

주승용의원 측근 '검은 돈' 수수 확인

당 핵심인사 연루설...경찰 수사 확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오현섭 발(發) 비리수사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부터 수수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검은 돈'이 여수지역 지방의원을 넘어 주승용 국회의원 측근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치권의 '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급속한 혼란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측근에게 7000만원을 전달했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 의원 측근을 불러 이 돈이 실제로 주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건넌간 시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측근을 통해 지난 5월 20일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내 지역위 사무국장에게 본인의 선거자금으로 모두 6000만원을 전달했고 이 돈은 오 전 시장의 선거에 사용됐다"며 "지역위가 선거 기간에는 정당 후보 사무실로 사용돼 일어난 일로 나오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부정한 돈은 단 한 푼

도 받지 않았으며 만약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오 전 시장의 로비가 여수에만 머물렀느냐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여수 시장 후보 경선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민주당 실세들에게도 오 전 시장의 검은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동안 바닥에서 떠돌던 온갖 '설'들이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중앙당 실세 2~3명에게 역대급 자금을 전달했으며 일부 고위 당직자도 연루됐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로비 형식으로 당내 의원들에게 금품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비대위 측은 최근 오 전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내 모 인사는 "내가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정계 은퇴와 함께 성을 갈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전 시장 사건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오현섭 전 시장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현 여수시의원 6명

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오현섭(60·구속) 전 여수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수시의원 일부에 대해 이르면 6일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경찰청과 여수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여수시 야간조명사업'과 '이순신광장조성사업' 과정에서 흘러나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여수시의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주모(67·구속) 씨로부터 지난해 말 500만원짜리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이순신광장사업'과 관련해 또 '이순신광장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결과 14명의 혐의를 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야간조명사업' 과정에서 현직 시청직원 4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연루 공무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유명환 외교통상 장관 결국 사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딸의 특혜 채용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임대회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알았다"고 답해, 사실상 사의를 수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 장관의 사의 수용과 관련,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보통 때 같으면 오

래된 관습이라면 어찌된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일 지도 모르지만 공정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의 후임에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태식 전 주미대사, 이규형 전 러시아 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

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변호사 업무재개인사</p> <p>동성환 가운을 앞둔 이태 건과 행은이 함께 시기를 버텨왔다. 그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0년 9월 6일 기준으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서석에서 다시 변호사 업무를 재개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변호사로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p> <p>· 주요학력 및 경력 1972. 전남남도 영광 종합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 연세대학교 법학과(법학과) 졸업(박사) 1980.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02. 프랑스 파리 1대학(Panthéon-sorbonne)졸업(법학박사) 1982. 제2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 변호사 개업(광주지방변호사회) 2007.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민법 담당)</p> <p>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오수원 올림</p>	<p>변호사 개업인사</p> <p>저는 2년간 법무법인 서석의 소속변호사로 재직 하다가 이번에 법무법인 서석의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변호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p> <p>· 주요학력 및 경력 · 공군항공과학교육학과 입학, 검정고시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학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p> <p>2010년 9월 3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고운오 올림</p> <p>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p> <p>대표변호사 김용열 박도영 김전권 변호사 양차권 김경운 윤춘주 이민아 김인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선동 715-2번지 법조타운 1098·2068·2078 *전화: 062-226-7400-7401 / 팩스: 062-225-5310-5365</p>
---	---

심청이 가져다고 떠나는 섬진강 마을축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심청마을 가을 향연

제10회 곡성심청축제

THE 10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가을꽃이 어우러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멋진 추억을.....

2010.10.1(금) ~ 10.3(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주최 | 곡성군
주관 | 곡성군심청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061)360-8318
www.simcheong.com

곡성 | 곡성 |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www.simcheong.com